

# 중국의 입국관광 성장과 입국관광객의 공간적 분포 변화

최 경 은\*

## Inbound Tourism Growth and the Changing Spatial Distribution of Inbound Tourist Flows at the Regional Level in China

Choi, Kyung-Eun\*

**요약**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입국관광을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동력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외국인의 중국 방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2008년 현재 입국관광객 수 기준 세계 4위에 올라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관광통계 자료를 토대로 중국의 입국관광 성장을 살펴보고 지역단위(31개 성급 행정구역)에서 방중 외국인 관광객의 공간적 분포에 대해 1995년과 2008년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6개 국가(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독일, 러시아)를 대상으로 공간적 분포의 특징과 변화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러시아를 제외한 5개 국가의 경우,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관광객이 동부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서부지역으로 갈수록 그 분포가 희박한 반면, 중부지역의 방문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북부지역과 최남단 지역의 방문이 두드러져 상당히 다른 분포 패턴을 보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입국관광 관점에서 중국 지역의 변화와 역동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중국, 입국관광, 관광객의 공간적 분포, 비교 분석

**Abstract** : China's inbound tourism became one of the key drivers for economic growth with open-door policy in 1978 and has experienced the fast growth over the past three decades. In 2008, China, as one of the world's leading tourist destinations, is ranked the 4th globally in the number of inbound overnight tourists. Based on China tourism statistic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growth of inbound tourist flows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changing spatial distribution by comparing between 1995 and 2008 at the regional level (31 province-level regions) in China. In particular,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tourist flows from the 6 main generating countries (South Korea, Japan, Singapore, U.S.A., Germany, and Russia) are more concretely analyzed. For five countries except Russia, with slight differences by country, while the eastern area of China is still the most popular destination and western part remains the least visited area, the central part is witnessing the increasing popularity. Russia shows an obvious difference, presenting the spatial pattern that tourist flows are mainly concentrated in the northern and the most southern part of China. This paper helps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China's regional changes from an inbound tourism perspective.

**Key Words** : China, inbound tourism, spatial distribution of tourist flows, comparative analysis

관광업은 육성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집중적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관광개발은 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국가가 도시 건설에 일부 자금을 투자하지만 점점 관광 수입을 통해 도시 건설에 보탬이 있다. 전국에 관광 관련 기업들을 설립해야 한다... 관광산업의 발전은 청년 취업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종사자들을 철저히 훈련시켜야 한다.

덩샤오핑(邓小平), 1979년 1월 6일

항공업과 관광업은 발전시킬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중·미 양국의 관계가 비록 정상화되지 않았을지라도, 상무 관계는 발전시킬 수 있다... 항공회사를 통한 대외 연계는 외국과의 교류에 있어 편리하다... 우리의 최대 입국관광시장은 미국이며, 또한 일본이다... 관광총국(旅游局)과 민항총국(民航总局)은 공동으로 총체적인 관광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덩샤오핑, 1978년 10월 9일  
(中国国家旅游局·中共中央文献研究室编, 2000)

\* 싱가포르 국립대학 지리학과 박사후 연구원(Postdoctoral Fellow, Department of Geograph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geomink@hanmail.net)

## 1. 서론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이 동반되는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주목받으며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Zhang, 2009). 특히 국제관광은 주요 수출 소득원(*export earner*)이자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수 확보와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Eilat and Einav, 2004, 1315). 그러나 관광개발은 하나의 정책적 선택으로서 모든 국가가 똑같은 관심과 지지를 나타내지는 않으며, 한 국가의 경제 수준이 관광산업의 목적과 패턴, 특징 등에 영향을 미친다(Liu, 1998, 27; Wen and Tisdell, 2001, 8에서 인용).

신중국 수립 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외교업무의 일환으로서 관광업을 추진하였다(Zhang *et al.*, 1999). 그리하여 여행을 창립하는 등 관광 관련 업무는 국가의 외무활동에 포함되었으며 경제활동으로서의 특성은 없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중국은 관광산업을 경제발전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다(조광익, 1995; Tisdell and Wen, 1991; Zhang *et al.*, 1999). 특히 덩샤오핑이 제시한 관광경제 사상은 관광업의 기능을 ‘외교접대형’에서 ‘경제산업형’으로 전환시키며 관광의 산업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최경은, 2008, 472; Xiao, 2006). 이어 1990년대 중국 정부는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입국관광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내관광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출국관광을 적절하게 발전시킨다”는 기본방침을 제시하였다(최경은, 2008, 474).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 하에 이루어진 집중적인 관광개발로 국제관광 목적지로서 중국은 2008년 현재 관광객(*overnight tourists*) 수 기준 세계 4위, 관광수입 기준 세계 5위에 올라 있으며(中国国家旅游局, 2009), 입국관광의 빠른 성장은 중국의 관광산업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관광은 국가의 성장동력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

어서 중국의 많은 도시들과 지역들은 관광에 중점을 둔 개발 담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였고, 특히 서부대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된 내륙 및 서부지역들은 뒤쳐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Jackson, 2006).

중국의 경제성장과 지역개발에 있어 국제관광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관광정책들을 다루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송재훈, 2005; 정기은 2003a, 2003b; 조광익, 1995, Airey and Chong, 2010, Uysal *et al.*, 1986; Zhang *et al.*, 1999). 이러한 정책 연구 외에 Yan and Wall(2002)과 Oosterhaven and Fan(2006)은 중국에서 관광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Mansfeld(1990)와 Li *et al.*(2008)은 관광객 이동의 공간적 패턴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의 국제관광에 있어 이러한 지리적 관점의 연구들로는 Bowden(2003), Lim and Pan(2005), Zhang(2009) 등이 있다. 먼저 Zhang(2009)은 중국에서 입국관광의 공간적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계량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입국관광 성장은 가격, 위험 정도, 국경 공유 여부와 공통 언어, 거리 등(Eilat and Einav, 2004)과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중국의 광대한 면적과 오랜 역사에 의한 관광자원의 풍부함과 다양성(Gormsen, 1990),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관광산업 육성 노력에 따른 입국방식의 유연성 증가, 관광시설 확충(Oudiette, 1990) 등 상당히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관광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일반적인 결정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Bowden(2003)과 Lim and Pan(2005)은 특정 시점에서 중국 입국관광의 지역적 흐름과 패턴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입국관광의 빠른 성장과 그것이 중국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중국 입국관광의 지역적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중국 입국관광의 성장 추세를 살펴보고 방중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역적 분포의 특징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단위에서



그림 1. 중국 행정구역도(성·시·자치구)

중국의 입국관광 성장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중국 입국관광시장의 특성을 국적별, 목적별, 그리고 교통수단별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셋째, 1995년과 2008년의 방중 외국인 관광객 수를 지역 단위에서 비교분석하며, 특히 6개 국가(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독일, 러시아)를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중국관광통계연감(中国旅游统计年鉴)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의 지역 단위는 31개 성급 행정구역(성·시·자치구)이다(그림 1).

## 2. 중국의 입국관광 성장

신중국 수립 초기에 많은 외국인들은 중국을 직접 방문하기를 원했으며, 화교들 또한 친척·친구들과의 만남을 열망하였다. 그리하여 중국 정부는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관광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

였다. 1954년에는 중국국제여행사의 설립을 비준하였는데, 이 여행사는 중국을 방문한 외빈의 음식, 숙박, 교통, 유람 등 전체 관광 일정을 담당하였다. 중국국제여행사는 구소련과 동유럽 일부 국가들의 관광기구들과 계약을 맺었으며, 또한 프랑스 등 일부 서방국가의 여행사들과도 업무 연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가 중국 방문 관광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1964년에 저우언라이(周恩来) 총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14개 국가를 방문하면서 중국은 대외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1966년에 시작된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중국의 관광업은 매우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저우언라이 총리는 외교를 위한 관광활동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에 입국관광은 다소 호전되었다. 1971년에 중국은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 동유럽 일부 국가들과 한동안 중단되었던 관광 업무 교류를 회복하였으며, 또한 자

비로 오는 일부 미국 관광객들의 방문을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다시 조금씩 증가하게 되었다.<sup>1)</sup>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관광업은 새로운 발전 시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중국의 문호가 개방되자 각국의 인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1978년에 중국의 입국자 수는 약 181만 명이었으며, 입국관광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1984년에는 최초로 1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1988년에는 대만 사람들이 중국 대륙의 친지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시장을 개방하였으며(王威·朱先发主编, 2002), 1990년대에도 중국의 입국관광은 빠르게 성장하여 1996년에 5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는 입국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섰으며, 2008년 현재 중국의 입국관광객 수는 약 1억 3천만 명이다.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의 개최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세계적 경제 위기의 발생으로 2007년에 비해 오히려 관광객 수가 감소하였다(표 1).

중국은 특수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입국관광

객을 외국인, 홍콩·마카오인, 대만인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Lim and Pan, 2005). 이러한 구분에 따라 입국관광시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홍콩·마카오인이 중국 입국자 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78년에는 약 156만 명의 홍콩·마카오인이 중국 본토를 방문하였으며, 이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1984년에 1천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1998년에는 5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2007년부터는 1억 명 이상의 홍콩·마카오인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1978년에는 약 23만 명이 방문하였고, 1984년에 1백만 명, 1994년에 5백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1천만 명 이상, 2005년부터는 2천 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방중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2,433만 명이다.

중국 입국관광시장의 구성에 있어 홍콩·마카오인과 외국인 수 간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990년까지는 홍콩·마카오인이 약 90% 정도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홍콩·마카오인의 구성비가 85%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표 1. 중국의 입국관광 성장(1978~2008)

(단위: 만 명, %)

연도	전체	외국인		홍콩·마카오인		대만인	
	관광객 수	관광객 수	구성비	관광객 수	구성비	관광객 수	구성비
1978	180.9	23.0	12.7	156.2	86.3	-	-
1979	420.4	36.2	8.6	382.1	90.9	-	-
1980	570.3	52.9	9.3	513.9	90.1	-	-
1985	1,783.3	137.1	7.7	1,637.8	91.8	-	-
1990	2,746.2	174.7	6.4	2,467.5	89.9	94.8	3.5
1995	4,638.7	588.7	12.7	3,885.2	83.8	153.2	3.3
2000	8,344.4	1,016.0	12.2	7,009.9	84.0	310.9	3.7
2001	8,901.3	1,122.6	12.6	7,434.5	83.5	344.2	3.9
2002	9,790.8	1,344.0	13.7	8,080.8	82.5	366.1	3.8
2003	9,166.2	1,140.3	12.4	7,752.7	84.6	273.2	3.0
2004	10,903.8	1,693.3	15.5	8,842.1	81.1	368.5	3.4
2005	12,029.2	2,025.5	16.8	9,592.8	79.8	410.9	3.4
2006	12,494.2	2,221.0	17.8	9,831.8	78.7	441.4	3.5
2007	13,187.3	2,611.0	19.8	10,113.6	76.7	462.8	3.5
2008	13,002.7	2,432.5	18.7	10,131.7	77.9	438.6	3.4

자료: 中国国家旅游局, 2009, 中国旅游统计年鉴.

중국의 입국관광 성장과 입국관광객의 공간적 분포 변화

특히 2005년 이후에는 70%대로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90년까지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최근에는 20%에 가까운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표 1).

〈그림 2〉는 중국 입국관광객 수의 연간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전체 입국자 수의 연간 성장률 패턴을 살펴보면, 1980년 이후 (+)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해 오다 1989년에는 중국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22.7%의 성장률을 보이며 중국 방문자 수가 대폭 감소하였다(Roehl, 1995). 이후 (+)의 연간 성장률이 지속되다가 2000년대 들어와 2003년(-6.4%)과 2008년(-1.4%)에 (-) 연간 성장률이 나타났는데, 이는 각각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발생과 세계적 경제 위기의 영향 때문이다. 그리고 홍콩·마카오인은 전체 입국자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두 그래프는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1990년대 들어서 홍콩·마카오인보다 더 높은 연간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대비 관광객 수가 감소한 시기는 네 차례로, 1989년(-20.7%), 2003년(-15.2%), 2008년(-6.8%) 외에 1998년(-4.3%)에도 (-) 성장률이 나타났는데, 그 당시 발생한 금융 위기가 홍콩·마카오인보다 외국인의 중국 방

문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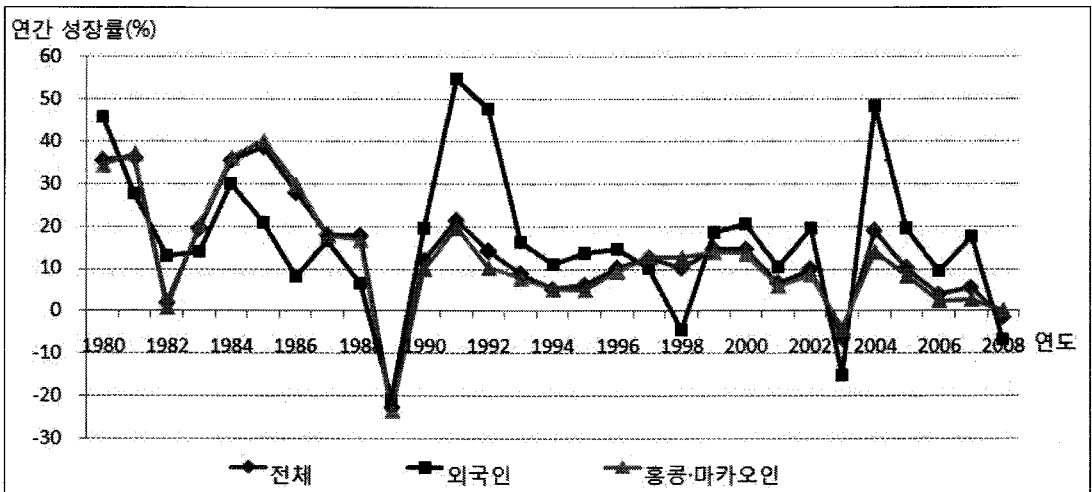
### 3. 중국 입국관광시장의 특성

#### 1) 주요 국가별 방중 관광객 추이

중국은 1국가 2체제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홍콩·마카오인의 중국 방문은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입국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홍콩·마카오인과 대만인을 제외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별 중국의 입국관광객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대륙별로는 아시아지역이 1980년대 이후 줄곧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약 60%를 구성하고 있다. 유럽지역은 1980년대에는 미주지역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다가 1990년대 이후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두 번째로 큰 관광시장으로 부상하였다. 2008년 현재 유럽지역은 중국의 입국관광시장에서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러시아가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표 2〉는 1985년부터 2008년까지 입국관광객 수 기준 1위부터 5위까지의 국가들을 나타낸 것이다. 덩샤오핑이 중국의 최대 입국관광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했던 일본과 미국은 1985년에 각각 약 47



자료: 中国国家旅游局, 2009, 中国旅游统计年鉴.  
주: 연구자가 계산하여 작성.

그림 2. 중국 입국관광객 수의 연간 성장률(1980~2008)

표 2. 주요 국가별 방중 관광객 추이(1985~2008)

(단위: 만 명)

순위	1985		1990		1995	
	국가	관광객 수	국가	관광객 수	국가	관광객 수
1	일본	47.1	일본	46.3	일본	130.5
2	미국	24.0	미국	23.3	한국	53.0
3	호주	7.8	구소련	11.0	미국	51.5
4	영국	7.1	영국	7.9	러시아	48.9
5	필리핀	5.8	필리핀	7.9	몽골	26.2
전체	137.1		174.7		588.7	
순위	2000		2005		2008	
	국가	관광객 수	국가	관광객 수	국가	관광객 수
1	일본	220.2	한국	354.5	한국	396.0
2	한국	134.5	일본	339.0	일본	344.6
3	러시아	108.0	러시아	222.4	러시아	312.3
4	미국	89.6	미국	155.6	미국	178.6
5	말레이시아	44.1	말레이시아	90.0	말레이시아	104.1
전체	1,016.0		2,025.5		2,4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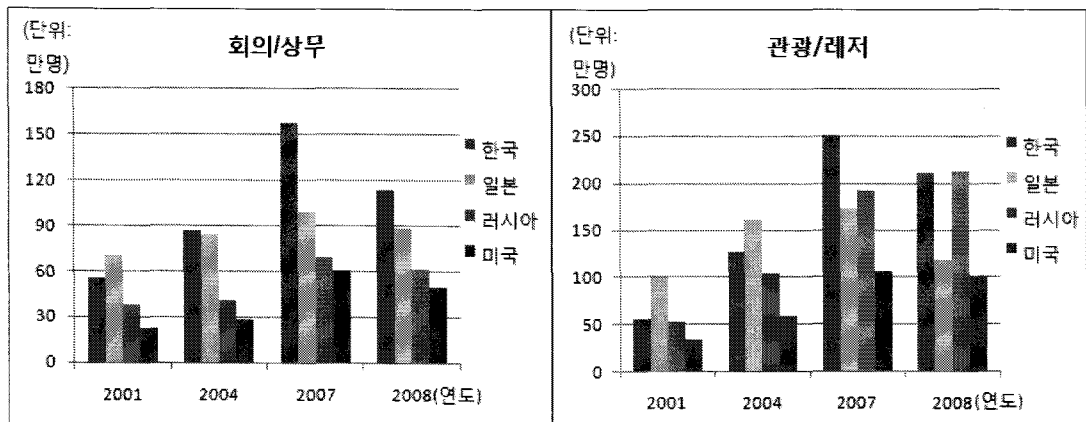
자료: 中国国家旅游局, 각년도, 中国旅游统计年鉴.

만 명과 약 24만 명의 관광객 수를 보이며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러시아의 방중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1990년대 중후반 부터는 미국을 앞질러 각각 2위와 3위로 올라섰다. 특히 한국은 2005년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외국인 관광객 수에 있어 중국의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2007년에 중국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 수가 약 478만 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었으나, 2008년에는 경제 위기로 인해 관광객 수가 감소하여 약 396만 명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 2) 주요 국가별 중국 방문의 목적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입국관광은 방문 목적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회의·상무(meetings/business), 관광·레저(sightseeing/leisure), 친척·친구 방문(visiting relatives & friends), 서비스 종사자(worker & crew), 기타. 여기서 회의·상무 항목은 비즈니스 관광객으로 그리고 관광·레저 항목은 순수 관광객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2008년에 다소 주



자료: 中国国家旅游局, 각년도, 中国旅游统计年鉴.

주: 목적별 입국관광객 수가 2001년부터 중국관광통계연감에 제시됨.

그림 3. 주요 국가별 중국 방문의 목적

중국의 입국관광 성장과 입국관광객의 공간적 분포 변화

춤하였을지라도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투자 및 무역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순수관광 목적지로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회의·상무 목적의 경우,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1년 약 297만 명에서 2008년에는 약 568만 명으로 거의 2배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2001년에는 일본 관광객(약 70만 명)이 가장 많았으나, 2008년에는 한국 관광객 수가 약 113만 명으로 가장 많다. 한편 순수 관광·레저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2001년에 약 394만 명에서 2008년에는 약 1,204만 명으로 3배 정도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2001년에는 역시 일본인이 약 101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08년에는 러시아(약 213만 명)와 한국(약 211만 명)에서 관광·레저 목적으로 중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였다.

그러나 '기타'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일본인 수가 전체 일본 관광객 수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 간의 목적별 입국자 수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sup>2)</sup>

3) 주요 국가별 중국 방문의 교통수단

관광지 개발에 있어 교통 체계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Khadaroo and Seetana, 2008; Prideaux, 2000). 중국은 국토 면적이 넓은 만큼 입국할 수 있는 교통수단 또한 다양하다. <그림 4>는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국 방문의 교통수단별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1995년에는 일본, 한국, 미국 모두 항공편을 가장 많이 이용한 반면, 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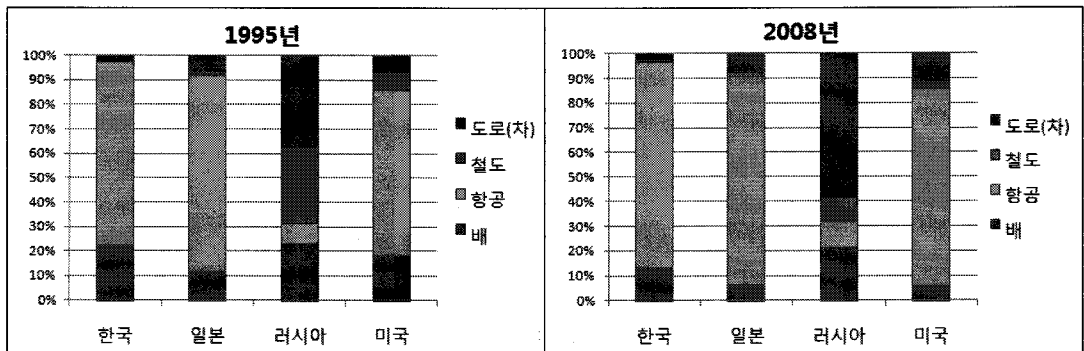
적으로 접해 있는 러시아는 도로와 철도의 이용 비율이 각각 3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배편에 있어서는 러시아와 한국이 20%대의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2008년에도 역시 일본, 한국, 미국은 항공편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는데, 1995년에 비해 이용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났다. 한편 러시아는 중국 방문 시 도로 이용률이 57%로 크게 증가한 반면, 철도 이용 관광객 수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배편의 경우 러시아는 여전히 20%대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10%대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관광객이 항공편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점점 더 저렴해지는 항공요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중국 여행 왕복 항공료 20만원 시대', SBS 뉴스, 2006.8.16).

4. 중국 입국관광객의 공간적 분포의 특징 및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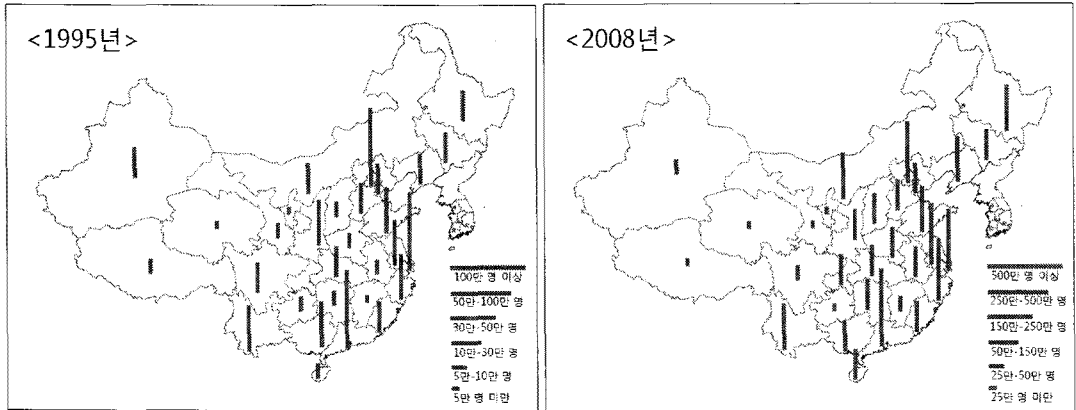
중국은 광대한 면적을 보유한 만큼 많은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또한 자연환경, 민족, 문화 등이 지역마다 매우 다양하다. 본 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공간적 분포의 특징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31개의 성급 행정구역(성·시·자치구)에 기반하여 1995년과 2008년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sup>3)</sup> 특히 중국 입국관광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6개 국가(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독일, 러시아)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림 5>는 1995년과 2008년에 중국을 방문한



자료: 中国国家旅游局, 각년도, 中国旅游统计年鉴.  
주: 연구자가 계산하여 작성.

그림 4. 주요 국가별 중국 방문의 교통수단



자료: 中国国家旅游局, 각년도, 中国旅游统计年鉴.

그림 5. 방중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적 분포

외국인 관광객 수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1995년의 분포 패턴을 살펴보면 외국인 관광객 수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남쪽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0만 명 이상 방문한 지역은 중국의 대표적인 3대 관문인 베이징시, 상하이시, 광둥성이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제일 많은 지역은 베이징시(166.5만 명)이며, 그 다음이 광둥성(122.1만 명), 상하이시(107.5만 명) 순이다. 한편 중·서부지역에서는 윈난성(47.4만 명), 산시(陝西)성(39.7만 명), 광시좡족자치구(30.7만 명), 네이멍구자치구(29.5만 명), 쓰촨성(24.5만 명) 등이 주요 방문 지역들이다.

1995년에는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수의 총합이 880.6만 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거의 5배에 달하는 4,275.3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외국인 방문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1995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중국의 동부지역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으며 서부지역으로 갈수록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5년에 비해 국제관광 목적지로서 중부지역의 방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08년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광둥성(608.8만 명)이며, 그 다음이 상하이시(441.6만 명), 장쑤성(396.1만 명), 쑤저우성(366.1만 명), 베이징시(335.7만 명) 순이다. 3대 관문 지역이 여전히 가장 많은 관광객 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3개 지역 내에서 순위의 변동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즉, 1990년대에는 베이징시가 외국인 관광객 수 기준 1위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광둥성이 가장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동부지역에서 상하이시와 그 주변 장쑤성, 쑤저우성이 입국관광의 주요 밀집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랴오닝성(207.3만 명), 산둥성(206.4만 명), 헤이룽장성(193.3만 명) 등은 두 번째 규모의 그룹을 형성하는 지역들이다.

중국의 중·서부지역에서는 여전히 윈난성(169.2만 명), 네이멍구자치구(153.2만 명), 광시좡족자치구(120만 명), 산시(陝西)성(93.7만 명), 쓰촨성(47.8만 명) 등이 주요 방문지역들이다.<sup>4)</sup> 이 중 쓰촨성은 2007년에 107.4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였으나, 대지진으로 2008년에는 관광객 수가 급감하였다. 한편 중부 내륙지역에 위치한 후베이성(92.7만 명), 안후이성(90.8만 명), 충칭시(74.3만 명), 후난성(71.1만 명) 등은 외국인의 방문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들이며, 중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하이난성(53.1만 명)은 휴양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sup>5)</sup>

### 1) 동북아시아 : 한국, 일본

#### (1) 한국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방중 한국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5년에 지역별 한국 관광객 수의 총합은 71.7만 명이며, 주로 동부 연해지역과 동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6). 한



중국의 입국관광 성장과 입국관광객의 공간적 분포 변화

국에서 베이징시(17.3만 명)를 가장 많이 방문하였으며, 두 번째로 많이 방문한 지역은 조선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린성(11.1만 명)이다. 지린성의 경우, 한국 관광객 수가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의 약 77%를 차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목적지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한·중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있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다.<sup>6)</sup> 동부지역에서 관광객 수 기준 두 번째 규모의 지역군으로는 상하이시(8.8만 명), 산둥성(8.2만 명), 랴오닝성(6.5만 명)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3대 관문 중의 하나인 광둥성은 한국 관광객 수가 2.5만 명으로, 상대적으로 방문 비중이 낮다. 중·서부지역에서는 산시(陝西)성(2.7만 명), 광시좡족자치구(1.8만 명) 등이 한국 관광객들의 주요 방문지역이며, 그 외 대부분의 지역들은 한국 관광객 수가 상당히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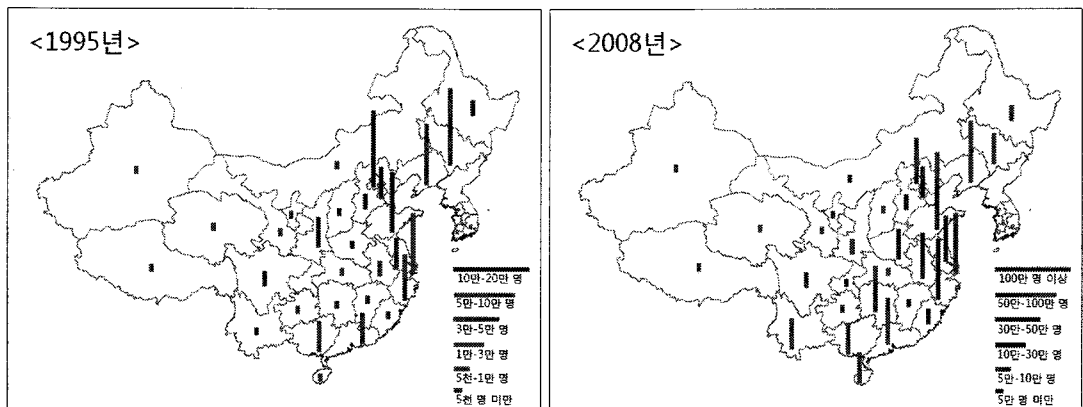
2008년에 지역별 한국 관광객 수의 총합은 631.8만 명으로, 1995년에 비해 거의 9배에 달한다. 공간적 분포 패턴을 1995년과 비교해 보면 주로 동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은 유사하나, 분포 범위가 중부 내륙 및 서남부지역으로 더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6). 먼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산둥성(105.1만 명)으로, 한국 관광객 수가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산둥성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항공편과 배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관광목적

지로서 산둥성은 타이산(泰山) 외에도 공자 관련 유적, 장보고가 세운 츠산(赤山) 법화원 등 한국의 문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이정훈·최경은·이은자, 2010). 동부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방문한 지역들은 랴오닝성(73.1만 명), 쩌장성(66.2만 명), 상하이시(51.1만 명), 장쑤성(48.4만 명) 등이다.

한편 중·서부지역에서는 중부 내륙에 위치한 안후이성(41.6만 명), 후난성(35.6만 명) 등이 한국 관광객들의 주요 목적지로 성장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중국의 대표 관문인 베이징시(35.3만 명), 광둥성(32.5만 명)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관광객 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부를 넘어 중부지역의 입국관광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분포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안후이성과 후난성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각각 황산(黄山)시와 장자제(张家界)시<sup>7)</sup>라고 할 수 있는데, 황산시의 경우 2008년 한국 관광객 수(35.8만 명)가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의 약 64%를 차지한다.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윈난성(13.7만 명)과 광시좡족자치구(12.6만 명)를 비교적 많이 방문하고 있으며, 하이난성 또한 한국 관광객 수(11.2만 명)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외 대부분의 지역들은 여전히 한국 관광객 수가 적은 지역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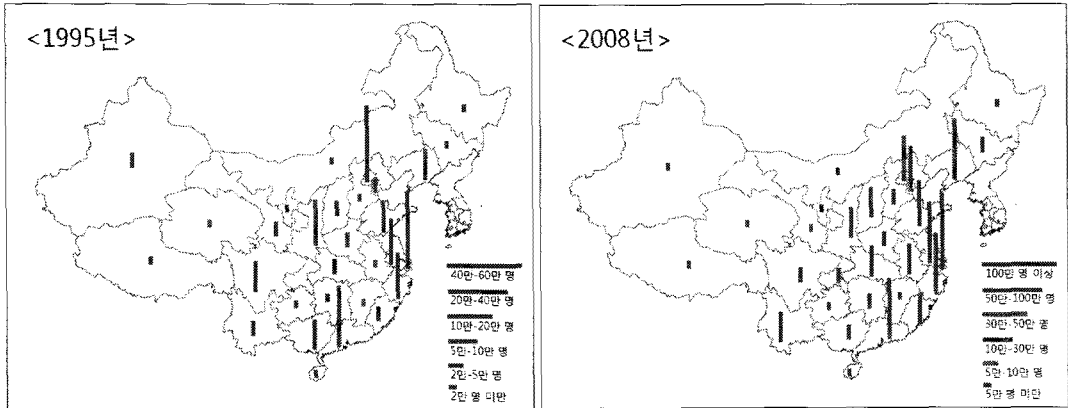
(2) 일본

일본은 1970년대에 중국과 수교한 이래 오랫동안



자료: 中国国家旅游局, 각년도, 中国旅游统计年鉴.

그림 6. 방중 한국 관광객의 지역적 분포



자료:中国国家旅游局, 각년도, 中国旅游统计年鉴.

그림 7. 방중 일본 관광객의 지역적 분포

안 중국의 최대 입국관광시장이었다. 1995년에 지역별 일본 관광객 수의 총합은 234.1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1995년도 중국 방문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7). 먼저 일본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중국의 3대 관문지역인 상하이시(48.5만 명), 베이징시(42.4만 명), 광둥성(28.9만 명)이다. 그리고 동부지역에서 두 번째 규모의 관광객 수를 보이는 지역은 상하이시를 둘러싼 장쑤성(17.6만 명), 쩌장성(10.5만 명)과 랴오닝성(9.4만 명) 등이다. 한편 중·서부 지역에서는 산시(陝西)성(14만 명), 광시좡족자치구(7.3만 명), 쓰촨성(7.2만 명) 등이 주요 방문지역이다.

2008년에 지역별 일본 관광객 수의 총합은 699.6만 명이며, 공간적 분포 패턴을 살펴보면 여전히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7). 일본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상하이시(102.7만 명)이며, 그 다음으로 장쑤성(98.9만 명), 광둥성(85.7만 명), 랴오닝성(70.8만 명), 쩌장성(66.2만 명) 순이다. 1995년에 상하이시에 이어 두 번째로 관광객 수가 많았던 베이징시는 40만 명의 일본인이 방문하여 1995년(42.4만 명)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산둥성의 경우 일본 관광객 수(43.5만 명)가 한국 관광객 수(105.1만 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한편 중·서부지역에서는 후베이성(14.3만 명), 윈난성(13.9만 명), 산시(山西)성(11.8만 명), 안후이성(10.9만 명), 산시(陝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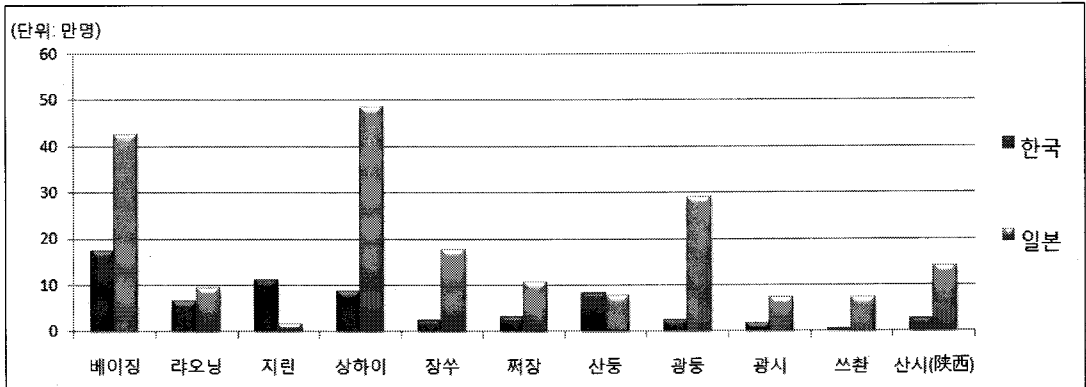
성(10.3만 명) 등이 비교적 관광객 수가 많은 지역들이다. 쓰촨성의 경우 오랫동안 일본인들의 주요 방문지역이었으나,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관광객 수가 2007년 28.8만 명에서 2008년에는 5.8만 명으로 급감하였다. 그 외 대부분의 지역들은 일본 관광객 수가 적은 지역들이다.

### (3) 한국과 일본 비교

<그림 8-1>과 <그림 8-2>는 한국 관광객과 일본 관광객이 선호하는 중국 지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먼저 <그림 8-1>은 1995년의 주요 방문지역들을 나타낸 것으로, 1990년대에는 일본이 중국의 제1의 입국관광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방중 관광객 수가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지린성의 경우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더 많이 방문하였으며, 산둥성은 한국과 일본의 관광객 수가 비슷하다.

방중 한국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08년에는 한국과 일본의 지역별 관광객 수가 거의 대등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그림 8-2). 한국 관광객 수가 더 많은 지역들은 산둥성, 안후이성, 후난성이며, 특히 안후이성과 후난성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방문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편 텐진시, 상하이시, 장쑤성, 광둥성은 일본 관광객 수가 더 많으며, 베이징시, 랴오닝성, 쩌장성 등은 한·일 관광객 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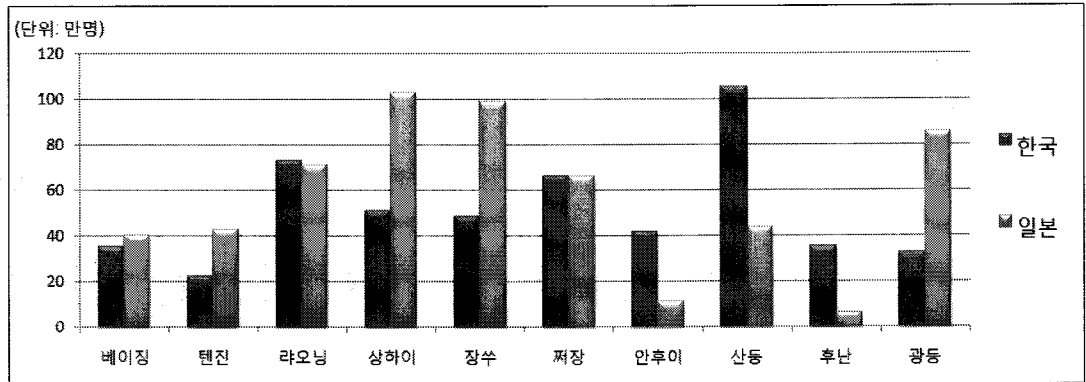
중국의 입국관광 성장과 입국관광객의 공간적 분포 변화



자료: 中国国家旅游局, 1996, 中国旅游统计年鉴.

주: 3만 명 이상의 한국인 또는 5만 명 이상의 일본인이 방문한 지역들을 추출함.

그림 8-1. 주요 지역별 한·일 관광객 수 비교 (1995)



자료: 中国国家旅游局, 2009, 中国旅游统计年鉴.

주: 30만 명 이상의 한국인 또는 일본인이 방문한 지역들을 추출함.

그림 8-2. 주요 지역별 한·일 관광객 수 비교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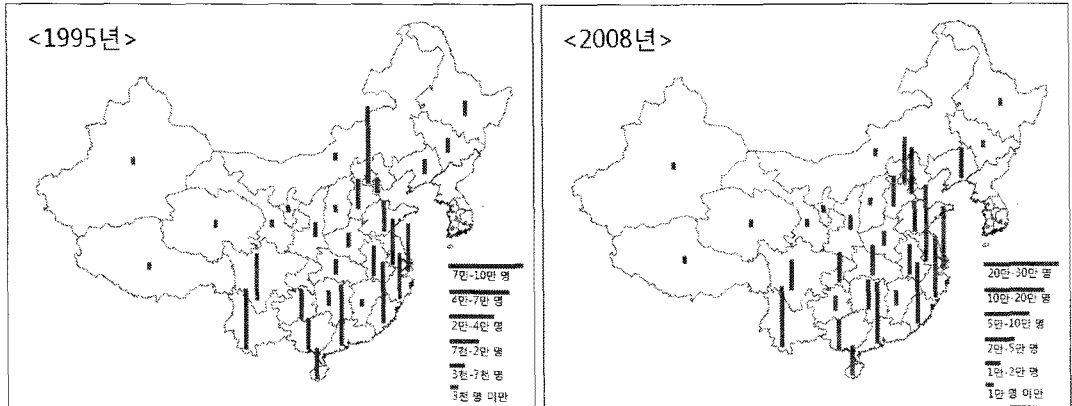
2) 동남아시아 : 싱가포르

외국인 관광객 수 기준으로 볼 때 2008년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이며, 싱가포르는 두 번째로 큰 입국관광시장이다. 그러나 지역별 방중 말레이시아 관광객 수 자료는 1996년부터 제공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싱가포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싱가포르는 약 484만 명(2008년)의 인구를 가진 작은 도시국가로 중국계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1995년에 지역별 싱가포르 관광객 수의 총합은 50.8만 명이며, 동부지역에 주로 밀집되어 있다(그림 9). 그 중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베이징시(7.3만 명), 푸젠성과 광둥성(각 6.1만 명)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동남부지역의

관광객 분포가 더 두드러지는데, 이는 동남아시아의 화교들이 대부분 푸젠성과 광둥성 출신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Chin, 2000). 그 다음으로 찌장성(3.9만 명), 장쑤성(3.7만 명), 상하이시(3.4만 명)가 동부지역의 두 번째 규모 지역군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중·서부지역에서는 윈난성(5.8만 명)을 가장 많이 방문하였으며, 쓰촨성(2.2만 명) 또한 비교적 많은 관광객 수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 지역별 싱가포르 관광객 수의 총합은 148.2만 명이며, 1995년과 마찬가지로 동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그림 9). 동부지역에서는 장쑤성(20.1만 명)을 가장 많이 방문하였으며, 그 다음이 광둥성(19.8만 명), 상하이시(15.6만 명), 찌장성(13.6만 명), 푸젠성(10.8만 명), 베이징시(9.3만 명)



자료: 中国国家旅游局, 各년도, 中国旅游统计年鉴.

그림 9. 방중 싱가포르 관광객의 지역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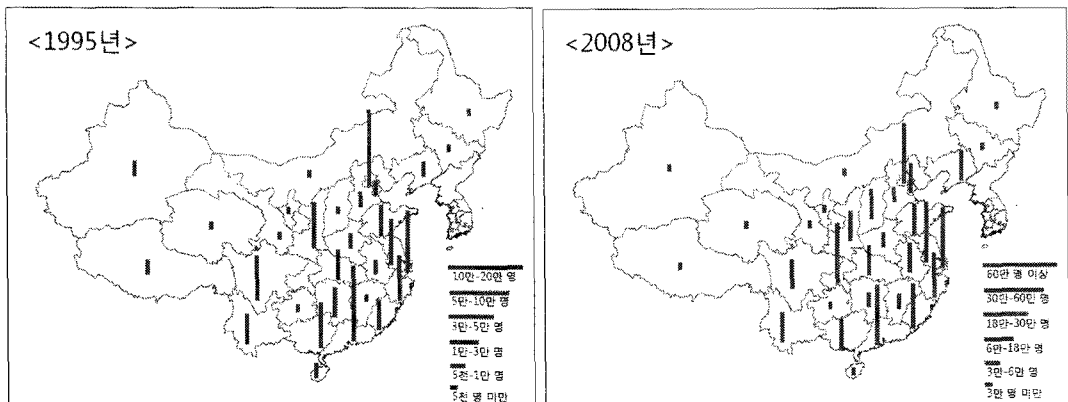
순이다. 특히 1995년에 비해 광둥성과 더불어 장쑤성, 상하이시, 쩌장성의 입국관광 성장이 두드러진다. 중·서부지역에서는 여전히 윈난성(10.4만 명)과 쓰촨성이 주요 목적지이나, 쓰촨성의 경우 역시 대지진으로 싱가포르 관광객 수가 2007년 8.7만 명에서 2008년에는 3.6만 명으로 급감하였다. 그 외 대부분의 지역들은 싱가포르 관광객 수가 적은 지역들이다.

### 3) 미주 : 미국

1995년에 지역별 미국 관광객 수의 총합은 73.6만 명이며,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베이징시(17.4만 명), 광둥성(12.9만 명), 상하이시(8.6만

명)로 전형적인 3대 관문 중심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보이고 있다(그림 10). 그리고 상하이시를 둘러싼 장쑤성(4.1만 명)과 쩌장성(3만 명)은 동부지역에서 두 번째 규모의 지역군을 형성한다. 한편 중·서부지역에서는 산시(陝西)성(4.5만 명), 쓰촨성(3.6만 명), 광시좡족자치구(3.5만 명), 윈난성(2.3만 명) 등이 미국 관광객들의 주요 방문지역들이다.

2008년 지역별 미국 관광객 수의 총합은 415.9만 명이며, 공간적 분포 패턴을 살펴보면 여전히 동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그림 10). 동부지역에서는 베이징시(53.8만 명), 상하이시(53.1만 명), 장쑤성(51.2만 명), 광둥성(45.2만 명) 등을 많이 방문하였으며, 특히 장쑤성의 관광객 수가 빠르게



자료: 中国国家旅游局, 各년도, 中国旅游统计年鉴.

그림 10. 방중 미국 관광객의 지역적 분포

중국의 입국관광 성장과 입국관광객의 공간적 분포 변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쩌장성(27.3만 명)과 푸젠성(25.6만 명)은 동부지역에서 두 번째 규모의 지역군을 형성한다. 한편 중·서부지역에서는 충칭시(31.7만 명), 산시(陝西)성(17.9만 명), 후베이성(14.5만 명), 윈난성(10.7만 명) 등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 특히 충칭시의 경우 미국인의 방문이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 중에서 약 42.7%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2007년 기준 쓰촨성과 충칭시의 관광객 수를 비교할 때, 한국,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더 많은 반면 미국은 충칭시를 더 많이 방문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편 그 외 대부분의 지역들은 관광객 수가 적은 지역들이다.

4) 유럽 : 독일, 러시아

(1) 독일

1995년에 지역별 독일 관광객 수의 총합은 35.7만 명이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3대 관문 중심의 분포 패턴을 보이고 있다(그림 11). 독일 관광객은 베이징시(8.8만 명)를 가장 많이 방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상하이시(3.8만 명), 광둥성(3.3만 명) 순이다. 동부지역에서 장쑤성(2.7만 명)과 쩌장성(1.4만 명)은 두 번째 규모의 지역군에 해당한다. 한편 중·서부지역에서는 산시(陝西)성(2.9만 명), 광시 좡족자치구(2.3만 명), 쓰촨성(1.7만 명), 윈난성(1.6만 명) 등을 비교적 많이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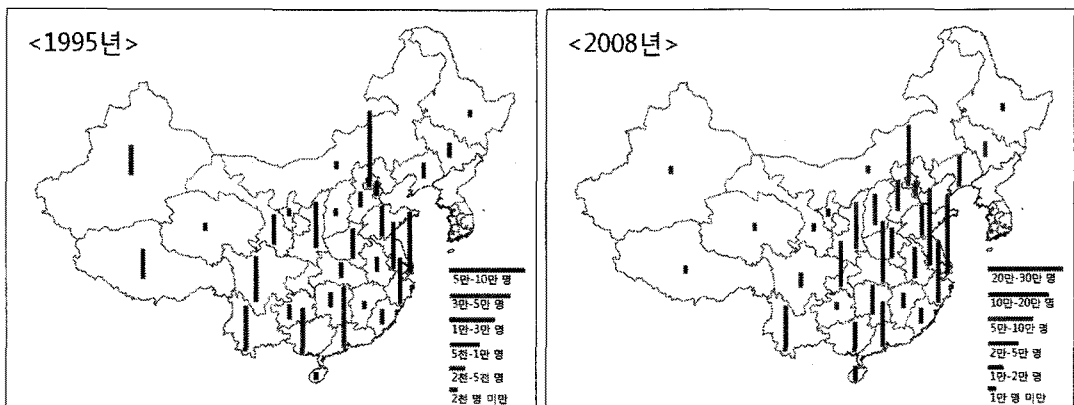
2008년에 지역별 독일 관광객 수의 총합은 154.3

만 명으로, 1995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분포 패턴을 살펴보면 동부지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중부 내륙지역도 주요 목적지로 성장하고 있다(그림 11). 동부지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장쑤성(21.9만 명)과 상하이시(20.8만 명)이며, 그 다음이 베이징시(16만 명), 쩌장성(11.1만 명), 광둥성(9.4만 명) 등이다. 한편 중·서부지역에서는 후베이성(12.2만 명), 윈난성(8.4만 명), 충칭시(6.1만 명), 산시(陝西)성(5.4만 명), 광시 좡족자치구(4만 명) 등이 관광객 수가 비교적 많은 지역들이다. 특히, 후베이성의 관광객 수 증가가 두드러지며, 충칭시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쓰촨성보다 관광객 수가 더 많다. 그 외 대부분의 지역들은 관광객 수가 적은 지역들이다.

(2)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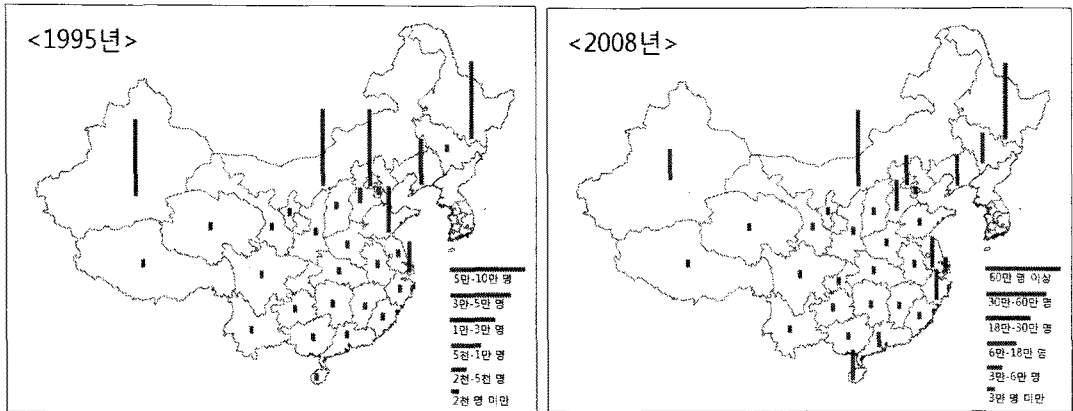
1995년에 지역별 러시아 관광객 수의 총합은 36.5만 명이며, 북부지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 전형적인 국경관광(cross-border tourism)의 형태를 띠고 있다(그림 12).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하이룽장성(9.6만 명)과 신장웨이우얼자치구(9.4만 명)이다. 그 다음으로 네이멍구자치구(6.3만 명)와 베이징시(약 6.2만 명)를 많이 방문하였으며, 랴오닝성(1.5만 명)과 산둥성(1.1만 명) 또한 비교적 많이 방문한 지역들이다. 그 외의 지역들은 러시아 관광객 수가 상당히 적다.

2008년에 지역별 러시아 관광객 수의 총합은 350만 명이며, 1995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북부



자료: 中国国家旅游局, 각년도, 中国旅游统计年鉴.

그림 11. 방중 독일 관광객의 지역적 분포



자료: 中国国家旅游局, 각년도, 中国旅游统计年鉴.

그림 12. 방중 러시아 관광객의 지역적 분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12). 그 중 헤이룽장성(171.4만 명)과 내이멍구자치구(61.6만 명)를 가장 많이 방문하였는데, 두 지역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 수가 각각 전체 러시아 관광객 수의 49%와 17.6%를 차지한다. 반면 신장웨이우얼자치구(9.6만 명)는 다른 접경지역들과는 달리 관광객 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베이징시(18만 명), 지린성(17.6만 명), 하이난성(15만 명), 랴오닝성(13.3만 명) 등은 관광객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군이다. 그리고 장쑤성(7.4만 명), 쟈장성과 허베이성(각 6.2만 명), 상하이시(5.6만 명) 등은 비교적 많이 방문한 지역들이다. 특히 하이난성을 방문하는 러시아 관광객 수가 많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이는 추운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이 열대 휴양지 섬인 하이난성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sup>8)</sup> 러시아 관광객의 공간적 분포 패턴은 동서 방향의 편차를 보이는 5개 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최남단 지역의 하이난성을 제외하고 남북 방향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 5. 요약 및 결론

중국은 오랫동안 굳게 닫아왔던 문을 개방하면서 관광산업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간주하고 외국인들의 중국 방문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줄곧 입국관광객 수 기준 4위를 차지하며, 국제관광 목적지로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

고 있다. 특히 중국은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지역적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느 지역을 주로 방문하는지 그리고 관광객의 공간적 분포에 시기별·국가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국 지역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입국관광 성장을 살펴보고 지역 단위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공간적 분포의 특징과 변화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관광통계 자료를 토대로 성급 행정구역에 기반하여 1995년과 2008년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독일, 러시아 6개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1978년에 중국의 입국자 수는 약 181만 명이었으며, 이후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8년에는 약 1억 3천만 명이 방문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도 입국관광객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 두 특별행정구가 전체 입국자 수 중에서 2008년 기준 약 78%를 차지하며 중국 입국관광시장 규모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다.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8년 현재 약 2,433만 명이며, 그 중 한국 관광객(약 396만 명)이 중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였고 뒤를 이어 일본(약 345만 명), 러시아(약 312만 명) 순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공간적 분포 패턴은 1995년과 2008년 모두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즉, 동부지역에 방문이 집중되어 있으며 중·서부지역

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 비중이 낮다. 그러나 두 시기 사이의 방문 분포 패턴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동부지역 내에서의 변화로, 1990년대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베이징시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광둥성이 제1의 목적지로 올라섰다. 상하이시와 이를 둘러싼 장쑤성과 쑤저우성의 방문 또한 점점 더 집중되고 있다. 둘째, 중부지역의 방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서부지역에서 윈난성, 내이명구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산시(陝西)성 등이 여전히 주요 방문지역들이나, 후베이성, 안후이성, 후난성, 충칭시 등의 방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남단에 위치한 하이난성은 중국의 대표적인 휴양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6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5년과 2008년의 방문 분포 패턴을 비교분석한 결과, 러시아를 제외한 5개 국가의 경우 방중 관광객이 여전히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중부지역의 방문 비중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간적 분포에 있어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먼저 한국은 동부지역에서는 1990년대에는 베이징시를 가장 많이 방문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산둥성을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다. 또한 랴오닝성과 쑤저우성, 상하이시, 장쑤성도 주요 방문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서부지역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후난성과 안후이성의 한국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부지역의 입국관광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동부지역에서는 1990년대부터 거의 줄곧 상하이시가 제1의 목적지이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웃 지역인 장쑤성과 쑤저우성의 일본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서부지역에서는 비록 대진으로 2008년에 관광객 수가 대폭 감소하였을지라도 쓰촨성이 일본의 주요 방문지역이며,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들어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 관광객은 1990년대는 동부지역 중에서 베이징시, 푸젠성, 광둥성을 많이 방문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광둥성 그리고 상하이시와 그 주변의 장쑤성, 쑤저우성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 중·서부지역에서는 윈난성과 쓰촨성이 싱가포르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역이다.

미국의 경우 동부지역에서는 1990년대부터 거의 줄곧 중국의 3대 관문지역인 베이징시, 상하이시, 광둥성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 독일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3대 관문지역 중심의 분포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밀집지역의 중심이 베이징시에서 상하이시와 장쑤성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모두 중·서부지역에서는 후베이성, 충칭시, 산시(陝西)성 등이 주요 방문지역인데, 후베이성의 경우 독일 관광객 수의 증가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미국과 독일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와는 달리 쓰촨성보다 이 지역에서 분리된 충칭시를 더 많이 방문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방중 관광객의 분포에 있어 동부와 서부지역 간에 편차를 보이는 5개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포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북부지역에 위치한 헤이룽장성과 내이명구자치구의 방문 비중이 현저히 높아 남북 방향으로 뚜렷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남부지역 중에서 최남단에 위치한 하이난성은 러시아 관광객이 선호하는 방문지역이다.

중국은 국제관광 목적지로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국의 각 지역들은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빠르게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관광은 중국 지역의 변화와 역동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분야이나, 중국 관광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지리적 관점에서 접근한 중국 관광 연구의 초석으로서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공간적 분포의 특징과 변화를 기술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과 연계하여 공간적 분포의 변화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변화의 주요 동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주

- 1) 이상 개혁개방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王威朱先发 主编(2002)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 2) 중국관광통계연감에 따르면, '기타'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일본인 수가 2001년에는 약 57만 명으로 전체 일본 관광객 수의 23.8%를, 2008년에는 약 119만 명으로 34.4%를 차지하고 있다.
- 3) 충칭시는 1997년에 쓰촨성에서 직할시로 분리되어 1995년 지도에는 충칭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 4) 윈난성의 쿤밍(昆明) 외에 다리(大理)와 리강(丽江), 광시좡족자치구의 꾸이린(桂林), 산시(陝西)성의 시안(西安), 그리고 쓰촨성의 지우자이거우(九寨溝) 등은 각 지역들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이다.
- 5) 하이난성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열대 레저휴양지 섬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방문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2010년 1월 4일 국무원(国务院)은 하이난성을 세계 일류의 레저휴양관광 목적지로 만들겠다는 《关于推进海南国际旅游岛建设发展的若干意见(하이난 국제관광섬 건설발전의 촉진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国务院发布推进海南国际旅游岛建设发展若干意见’, <http://news.xinhuanet.com>, 2010.1.4).
- 6)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때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조선족이 대중투자와 무역에 있어 가교 역할을 했으며, 또한 중국의 투자관행 등을 이해하는 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중국의 소수민족] ⑨ 차오시엔족(朝鮮族·조선족)’, 주간조선, 2010.1.12).
- 7) 장자제시 관광국 저우팡(周芳) 국장은 “지난해 장자제를 찾는 한국 관광객은 36만 명으로, 장자제를 찾는 해외관광객 중 80% 이상이 한국 관광객이다”며 “어떤 경우는 한국 관광객 수가 중국인 관광객보다 많은 때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신문사는 한국 관광객이 장자제를 많이 찾는 원인을 첫째, 독특한 자연 등의 관광자원, 둘째, 한국인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한글 간판 및 안내판, 한국 식당 등)을 들고 있다(‘중국 찾는 한국 관광객, 4명 중 1명은 장자제 간다’, <http://www.widechina.net>, 2007. 2.25).
- 8) 러시아인들은 이미 하이난성의 주요관광 수입원이 되고 있으며, 수많은 간판과 표지판들이 영어, 중국어와 함께 러시아어를 병기하고 있다(‘하이난, 발리푸켓 추월할 것’, <http://china.naeil.com>, 2007.4.16).

## 문헌

송재훈, 2005, 중국 관광산업의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8(1), 101-117.

이정훈·최경은·이은자, 2010, 지역간 국제적 문화·관광 교류에서 역사적 상관성의 작용과 역할: 경기도-산둥성 사례, 국토지리학회지, 44(2), 113-127.

정기은, 2003a, 중국 관광산업의 환경변화 및 발전추세, 문화관광연구, 5(1), 129-149.

정기은, 2003b,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에 따른 중국 관광정책의 변화, 문화관광연구, 5(1), 283-300.

조광익, 1995, 중국 국제관광정책의 발전구조 분석, 한양대 관광연구논총, 7, 219-247.

최경은, 2008, 중국 출국관광 시장의 개방정책 변화와 발전추세, 지리학연구, 42(3), 471-486.

王威·朱先发主编, 2002, 旅游, 旅游业, 旅游政策, 当代中国出版社, 北京.

中国国家旅游局, 各년도, 中国旅游统计年鉴, 中国旅游出版社, 北京.

中国国家旅游局·中共中央文献研究室编, 2000, 邓小平论旅游, 中央文献出版社, 北京.

曾博伟, 2009, 2008~2009年中国入境旅游分析、预测与展望, in 张广瑞·刘德谦主编, 2009年中国旅游发展分析与预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北京, 44-54.

Airey, D. and Chong, K., 2010, National policy-makers for tourism in China, *Annals of Tourism Research*, 37(2), 295-314.

Bowden, J., 2003, A cross-national analysis of international tourist flows in China, *Tourism Geographies*, 5(3), 257-279.

Chin, U.H., 2000, *The Chinese of South-East Asia*,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London.

Eilat, Y. and Einav, L., 2004,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tourism: a three-dimensional panel data analysis, *Applied Economics*, 36, 1315-1327.

Gormsen, E., 1990, The impact of tourism on regional change in China, *GeoJournal*, 21(1/2), 127-135.

Jackson, J., 2006, Developing regional tourism in China: the potential for activating business clusters in a socialist market economy, *Tourism Management*, 27, 695-706.

Khadaroo, J. and Seetanah, B., 2008, The role of transport infrastructure in international tourism development: a gravity model approach, *Tourism Management*, 29, 831-840.

Li, X., Meng, F., and Uysal, M., 2008, Spatial pattern of tourist flows among the Asia-Pacific countries: an examination over a decade,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3(3), 229-243.

Lim, C. and Pan, G.W., 2005, Inbound tourism



- developments and patterns in China, *Mathematics and Computers in Simulation*, 68, 499-507.
- Mansfeld, Y., 1990, Spatial patterns of international tourist flows: towards a theoretical framework,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4, 372-390.
- Oosterhaven, J. and Fan, T., 2006, Impact of international tourism on the Chinese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8, 347-354.
- Oudiette, V., 1990, International tourism in China,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 123-132.
- Prideaux, B., 2000, The role of the transport system in destination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21, 53-63.
- Roehl, W.S., 1995, The June 4, 1989, Tiananmen Square Incident and Chinese tourism, in Lew, A. and Yu, L. (eds.), *Tourism in China: Geographic, Polit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Westview Press, Boulder, 19-40.
- Tisdell, C. and Wen, J., 1991, Foreign tourism as an element in PR China's economic strategy, *Tourism Management*, 55-67.
- Uysal, M., Wei, L., and Reid, L.M., 1986,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ourism in PR China, *Tourism Management*, 113-119.
- Wen J.J. and Tisdell, C.A., 2001, *Tourism and China's Development: Policies,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Ecotourism*, World Scientific Pub., New Jersey.
- Xiao, H., 2006, The discourse of power: Deng Xiaoping and tourism development in China, *Tourism Management*, 27, 803-814.
- Yan, M. and Wall, G., 2002, Economic perspectives on tourism in China,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3), 257-275.
- Zhang, G., 1995, China's tourism since 1978: policies,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in Lew, A. and Yu, L. (eds.), *Tourism in China: Geographic, Polit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Westview Press, Boulder, 3-17.
- Zhang, H.Q., Chong, K., and Ap, J., 1999, An analysis of tourism policy development in modern China, *Tourism Management*, 20, 471-485.
- Zhang, J., 2009, Spatial distribution of inbound tourism in China: determinants and implication,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9(1), 32-49.
- 싱가포르 통계국 홈페이지 <http://www.singstat.gov.sg>
- 와이드차이나 홈페이지 <http://www.widechina.net>
- 주간조선 홈페이지 <http://weekly.chosun.com>
- 중국 신화망 홈페이지 <http://www.xinhuanet.com>
- 중국망 한국어판 홈페이지 <http://china.naeil.com>
- SBS 뉴스 홈페이지 <http://news.sbs.co.kr>
- 교신 : 최경은, 117570, 싱가포르 국립대학 지리학과, 싱가포르(geomink@hanmail.net, 전화: 65-8281-3389)  
Correspondence : Choi, Kyung-Eun, 117570, Department of Geograph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geomink@hanmail.net, Tel: 65-8281-3389)
- (접수: 2010.5.10, 수정: 2010.6.14, 채택: 2010.7.19)